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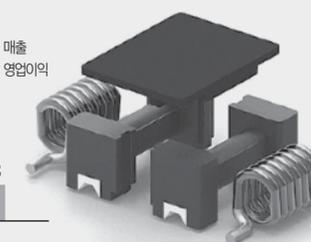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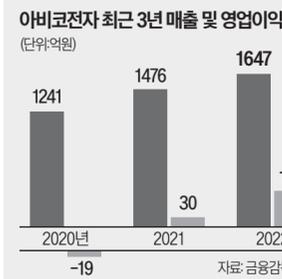
# '1세대 전자업체' 아비코, D램 핵심부품 도전

“고성능 서버 등에 사용되는 DDR5 D램 관련 수요를 맞추기 위해 메탈파워 인덕터 전용 공장인 충북 증평공장을 지난달 준공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아비코전자의 김창수 대표(사진)는 지난 21일 경기 성남 본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마자 자사의 야심작인 메탈파워인덕터 제품을 소개했다. 인덕터는 전자제품의 필수 부품으로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DDR5가 차세대 D램 표준 규격으로 꼽히는데 핵심 부품을 아비코전자가 생산한다.

DDR5용 메탈파워인덕터는 수송소자와 PCB(전자기기용 인쇄회로기판) 설비를 고루 갖춰야 하는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까닭에 삼성전기, 교세라 같은 대기업이 주로 생산한다. 아비코전자는 2018년부터 이 분야 기술 개발에 힘을 기울였고, 올해 매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비코전자는 1973년 한일합작회사로 출발한 '1세대 전자업체'다. 김 대표의 부친 김재영 회장이 투자해 설립했다. 1973년 김 회장은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고자 아비코전자를 일본 자본과 합작으로 세웠다. 김 회장 일가는 이듬해 일본 측 투자 자본을 전부 인수했다.



## 김창수 아비코전자 대표

1973년 韓·日 합작으로 출발 50년 중 적자는 다섯 차례뿐

PCB 자회사, 작년 흑자 전환 반도체 패키징 외주 가공 등 원가 경쟁력 위해 베트남 진출

당시만 해도 인덕터, 저항기 등 수송소자는 일본기업들이 선점하고 있어 국내 대기업들로서는 수입이 필수였다. 하지만 아비코전자가 오랜 노력 끝에 하나둘 국산화를 일궈냈다. 그 결과 지난 50년간 영업적자가 다섯 차례에 불과할 정도

로 안정적인 운영을 해왔다. 인덕터, 저항기 등의 수송소자는 매출 약 90%를 스마트폰, 반도체, 백색가전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전문경영인을 뒀지만 3세인 김 대표는 직접 회사를 맡기로 했다. 10년 전 입사한 뒤 2015년 대표에 올랐다. 아비코전자의 지난해 매출(연결기준)은 전년보다 11.5% 증가한 1647억원이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70% 늘어난 113억원을 거뒀다. 아비코전자는 PCB 제조사 코스모텍을 2018년 인수한 뒤 자회사 사명을 아비코테크로 바꿨다.

아비코테크는 인수 당시 회생 기업이었다.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로 인수한 뒤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해부터 반도체 패키징 외주 임가공 사업 등을 수주하면서 흑자 전환했다. 김 대표는 “외주 임가공도 지금보다 두 배 더 수주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아비코테크는 원가경쟁력을 위해 2020년 베트남에 진출했다. 2021년 말 고객 공장 승인을 받아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베트남 법안에서는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시그널인덕터(제품이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외의 다른 신호 제거 기능을 추가한 것)를 생산하고 있다. 김 대표는 “베트남 진출을 통해 원가절감을 할 수 있었고 원가율이 낮아지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아비코전자 주가는 최근 3개월간 10%가량 상승했다. 성남=최형창 기자



24일 인천의 한 주물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스 용해로를 살펴보고 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 “막내가 57세... 숙련공 代 끊겨” 뿌리산업, 고령화로 고사 위기



## 인력난에 불법체류자 고용 외국인 쿼터제 확대 시급

인천 경서동 서부산업단지에 있는 주물 업체 광희. 대형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인 ‘실린더 라이너’를 제조하는 이곳은 요즘 조선업 호황 덕에 주문이 밀려 들고 있다. 하지만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내국인 중 가장 젊은 근로자 나이는 57세. 나머지는 60~70대 고령자와 외국인 근로자다. 조영삼 광희 부회장은 “거대처에선 월 3000개의 납품을 요청하지만 1700개를 채우기도 벅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한계상황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년 근로자들의 유입이 끊긴 데다 50~70대 숙련공도 점차 현장을 떠나고 있어 대가 끊기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따르면 주조(주물),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도금), 열처리 등 6대 기반 공정 뿌리산업 종사자 수는 2018년 55만 5072명에서 2021년엔 48만 9744명으로 줄었다. 작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물, 도금, 용접 등의 인력난이 특히 심각하다.

충남 천안에서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삼천리금속은 50여 명의 내국인 근로자가 모두 60대 이상이다. 최고령자는 75세에 이른다. 조현익 삼천리금속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만으로는 한계가 있

어 퇴직하겠다는 근로자를 설득해 계속 일하도록 요청하는 사실상 ‘종신고용’ 형태로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경기 안산에 있는 도금산업 단지에서도 작년 하반기 알바미 부족 및 아연 도금업체 두 곳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았다. 1986년 주물업종 특화단지 조성된 인천 서부산업단지는 한때 42개의 주물업체가 몰려 있었으나 지금은 인력난 등이 지속되면서 10곳만 남았다.

용접 분야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울산의 한 용접업체 대표는 “조선과 원전 쪽에서 일감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까지 인력 수급이 안 된 적이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했지만 들어오지도 않아 불법체류자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에서 용접 인력 파견업을 하는 DH의 김진무 상무는 “경력자가 귀하다 보니 용접공 스카우트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설상가상 직업계고나 전문대의 용접 관련 학과도 없어지는 추세다.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나 스마트폰에도 용접 기술이 필수적인데 청년들이 기피하고 있어 기술 전수가 끊길 판”이라고 우려했다.

뿌리산업계는 인력난을 해소할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설립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청년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졸업생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물, 도금, 용접 등의 인력난이 특히 심각하다. 충남 천안에서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삼천리금속은 50여 명의 내국인 근로자가 모두 60대 이상이다. 최고령자는 75세에 이른다. 조현익 삼천리금속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만으로는 한계가 있

## 대동, KIST와 스마트파밍 플랫폼 개발

에그테크 플랫폼 기업 대동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 천연물 연구소와 ‘인공지능(AI) 그린바이오 스마트파밍 플랫폼’ 공동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 및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대동은 고기능성 작물과 일반 작물을 서울사무소 등에 구축한 스마트팜에서 직접 재배한다. 정부 기관-기업 등 외부로부터 농업 데이터도 이관받아 최소 자원으로 양질의 작물을 가장 많이 수확하는 생육 레시피를 개발한다.

이와 함께 △농작물 재배 준비 △생육 △수확 △유통 등 농업 전 주기에 걸친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파밍 플랫폼 사업에 추진한다. 고기능성 작물로 건강 증진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안형 건강 솔루션 사업’도 준비할 계획이다. 기존 품종보다 재배 가치가 높은 종자 지식재산(IP)도 확보한다.

원유현 대동 대표는 “KIST와 협력해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콘텐츠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인력 공급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 전용 쿼터를 신설할 후 모집 단계부터 관련 직업 능력을 고려해 선발하고, 이를 통해 선발한 인력을 신속하게 배정하기로 했다. 광희 기자

## 조선업 외국인력 쿼터 신설 매년 5000명 신규 투입

정부가 조선업에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를 신설해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년 5000명의 외국 인력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 간편하고 깔끔한 조립식 옹벽

### 옹벽종기

### 코뉴 ‘코뉴락’ 블록 자체 중량으로 토압 견디

옹벽은 흙의 압력에 저항해 토양이 무너지지 못하게 만든 벽체로 공사시 필수적인 구조물이다. 코뉴는 2015년 경기 안산시에 옹벽 제조공장을 준공하고 중력식 경관옹벽 브랜드인 ‘레디락’ ‘코뉴락’(사진) ‘가드락’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권혁우 코뉴 대표는 “국내에서 옹벽 설계부터 제조, 시공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전문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며 “토목 필수 구조물로서 쓰임새를 빠르게 넓혀 나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회사가 제조하는 옹벽은 조립식 옹벽 블록의 자체 중량만으로 토압에 견딜 수 있게 설계한 제품이다. 권



크리트를 천연 암석의 색과 질감으로 구현했다. 시공 때 토사 배출이 적고 지오그리드 같은 추가적인 보강재가 필요 없는 게 장점이다.

이 회사 옹벽은 최근 제주 전곡항 케이블카 건설공사, 경기 LX고양지사 신축 사옥, 서울 송파 우레지구 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3공구), 부산 서대신5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경기 김포마송 B-3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에 적용됐다. 2021년 매출 81억원, 영업이익 9억원의 올린 데 이어 지난해 매출 100억원, 영업이익 13억원의 기록했다. 김병근 기자

<b>REX ASSET</b> 렉스부동산중개(주) ☎ 02-3446-900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573, 4.5.7층 대표 주성균 제11680-2015-00030호 부동산실업 및 경력개발 상담 02-2033-9610	★역삼동 신축빌딩★ 2호선 도보3분 유동인구 상권최고 사옥 및 임대수익 대330㎡ / 최신 디자인 빌딩 매가 160억 02) 6989-0020	●급사옥용건물매● 서초구 대로변 지하철도보 2분거리 사옥용도 급구현, 지상 7층 빌딩 매가 72억 02)2033-0689	급매!! 강남대로 신축 대지+건물 1,880㎡ (B3-8F) 초역세권 우량임차인 상업지역 보증금 4억 / 월5,000만원 매가 195억 02) 6989-0016	[월가매도] 수도권 요양원 건물 전용 역세권 총층제 마지막 허가특 준주거지: 1,160㎡ / 건물: 3,550㎡ 매가 45억 · 교환가능 02) 6989-0016	★★대박빌딩★★ 대지 270㎡ / 건물 650㎡ 전용 병원 및 윗상가 대로변, 공실 없음 신축급 컨디션 엘리베이터 유 보1억1천 / 월950만(관,부평도) 두번다시 없을 건물!! 매가 27억 02) 6989-0014	●강남 테헤란로 역세권 신축부지 대지 249㎡ 매가 110억원 ●양천구 대로변 신축부지 대지 4,425㎡ 매가 600억원 02) 2033-0647 ◆수익7% 병원건물◆ 상업지 860㎡ / 건 5,800㎡(10층) ○약국, 명칭베아커라, 병원임대 “브랜드 입차 100% 계약완료” 보 10억 / 월1억 (관,부평도) 매가 180억 02) 2033-0601	사대문 사옥 급매 ★사대문 최고 메인 위치★ ** 대로변 코너 ** 대지 1,000㎡ 이상 12층 자취시 주차 전체명도 가능 일반상업지역 시세이하 급매물 매가 600억 02) 2033-0684	
부동산 광고문의 02)365-3000	빌딩 매매 전문 ● 서울 역세권 중심 ● ● 대400㎡ / 연 1,470㎡ ● ● 보 9억 / 월 1,500만 ● 금매가 46억 02)534-8338	강남 7호선 초역세권 신축빌딩 대 210㎡ / 건 550㎡ 7호선 도보2분 초역세권 7층건물 전용 근생시설로 연4.5% 가능 23년 신축 승강기 1대 / 자취시 주차 6대 초급매 65억 (02) 512-7073	강화 호텔 급매 월 매출 1억5천 토지 88,496㎡ 경관 “최상” 매가 195억 → 135억 02)549-1236	“올림픽공원”앞 대로변 담보 감정가 583억 3중주거 신축부지 1,917㎡ 사옥, 병원, 청년주택 등 매가 560억 조정가능 02)543-1235	담보 부동산 제공 한국감정의 50% 공시지가의 30% 땅, 건물(신설정/후불가능) 포인중가사 010-3603-2500	●소나무 세상● 가장음 소나무, 특수 소나무, 공장음 소나무, 농장 꾸미실 분 - 조경공사 시대조경 - 조경용 수목 사고 판매! 010-3145-4374, Fax 043)853-1554	●담보자금 ●법인증자 ●잔고증명 ●법인설립 ●어음할인 담당 010-7506-8331	
● 송파 수익 사옥 ● ● 초역세권 대로 빌딩 ● 대+건 - 3,560㎡ 내,외관 신축급 매매가 230억 02-590-6035	[급] “자동차공업사”매매 ★검사소 가능★ 대지 3,400㎡ 보 10억 / 월 8,700만원 매매 200억 02)543-0750	●판교 사옥, 신축55억● 대지449㎡ / 연856㎡ 지하1층/ 지상4층 주차 7대/ EV 1대 상담문의 02-545-1551	팬데믹 이후 세계의 향방, 그리고 우리의 과제 세계적 미래학자 자크 아틀리의 통찰!				생명경제로의 전환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는 일부러 시작해야 한다. 그걸 미리 준비해서 그 최악만큼은 피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제프 아틀리   일 부로 5년 1만 2천 9백 명	

전 세계 투자자들의 필독서  
 “최고의 수익은 최악의 침체장 뒤에 온다!”  
 미국 증시 100년 역사 속  
 거대한 내 번의 침체장 흐름에서 찾은 부의 기회!  
 “숨겨진 명제, 바다에서 치고 올라가기 위한 해법이 여기에 있다!”  
 <베어마켓 필독서>  
 bp.hankyung.com